

상표법 실전GS

56회 이창민 변리사
trademarkqna@gmail.com

[공부방법론]

판례와 규정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공부입니다. 그러나 사례형 문제를 푸는 것은 어디까지나 ‘논리적 글쓰기’를 하는 것이고, 판례는 글쓰기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판례를 잘 이해하고, 많이 아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의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을 뿐,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

고득점을 위해서는 암기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예컨대 A, B, C 세 가지 논점이 있고 A→B→C 순서대로 논리적 관계에 있는데 B→A→C로 작성할 경우, 학원GS에서는 득점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정답을 맞더라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. 마찬가지로 X라는 결론의 근거가 x, y, z라고 할 때 사안 포섭에서 xy만 적는다거나 xyz를 불명확하게 적는 경우 실제 시험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.

논리적 글쓰기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본다면, 모든 논점을 알더라도 모두 미흡하게 작성하여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으나, 논리적으로 글을 쓴다면 시험에 출제된 여러 논점 중 한 두 개를 전혀 모르거나, 잘 알지 못하더라도 다른 논점들을 제대로 작성하여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따라서 암기에 치중된 공부방법 보다는,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암기한 후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공부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

[강의특징]

- 1) 답안지의 형식적 작성 방법을 강의합니다.
 - 답안지는 많이 써야만 하는 것인지, 문제의 소재는 어떤 것인지, 목차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를 내용으로 합니다.
- 2) 답안지의 실질적 작성 방법을 강의합니다.
 - 병렬적 관계인 것 같아도 실제로는 선후 관계가 있는 논점이 어떤 것인지, 논리적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, 사안포섭 하는 방법을 내용으로 합니다.
- 3) 모든 답안지는 강사가 직접 채점합니다. 최대한 꼼꼼하게 채점·첨삭하려고 노력 할 것이고, 희망하는 수강생에게는 첨삭한 내용에 대해 개인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.

[진도표]

1~2회	총칙, 유사판단, 33조, 34조, 35조, 출원 절차	2시간 쓰기 10분 휴식 강평
3~4회	상표권, 침해, 심판, 소송, 마드리드, 비전형상표 등	
5~6회	전 범위	
7~8회		